

한국 연초학회 25년 회고

최 상 주

KT&G 중앙연구원

한국연초학회는 1977년 12월 연초유관기관인 전매청, 충북대학교 연초연구소 등의 후원을 얻고 창립되었으며, 그 후 25여년의 성상을 오직 연초산업 발전과 학술 발전을 위해 활동해 왔다. 학회의 정기총회는 년 1회 그리고 학술발표회는 춘·추로 나누어 연 2회 열렸으며, 1978년 6월 서울에서 제 1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개최된 이후, 지난 2002년 6월 충북대학교 대강당에서 제 26회 정기총회 및 제 47차 학술 발표회가 있었다.

학회를 이끌어온 제 1대 회장은 심상칠 교수님(1979 - 1982년)으로 그 당시 경희대학교 도서관장을 역임하셨는데 초기 학회발전을 위해 회장단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신 바 있다. 그 후 10대 이태호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회장님들이 본 학회를 이끌어 왔다. 학술 발표회는 초창기에 연구소에서 많이 그 후 KT&G, 연초연구소, 대학교 등 연초 유관기관에서 개최되어 왔는데 매회당 특별 강연 2-3편, 학술 발표 10~15편이 발표되었다. 한국 연초학회지는 1979. 5월 창간호가 발간된 이후, 학회지 당 10여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으며 2002년 6월에 통권 47호가 발간되어 회원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된 바있다.

학회지이외에도 발간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어 왔는데 담배"뉴스레터"(1979), 담배과학 총설(1987), 담배연구의 최근동향(1998), 해외연초 과학자 회의 논문수록집등(TCRC, CORESTA)도 발간되어 정보교류 및 학술 활동에도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. 학회의 주요행사 내용을 보면, 1997년 10월 창립 20주년 기념 담배과학 국제학술대회(서울대, 호암교수회관), 2000년 10월 새천년 심포지움(KT&G 수안보 수련관)등을 들 수 있겠다. 이에따라 학회 위상은 한층 거양되어 왔으며 학술활동 이외에도 과학대중화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만남의 장을 1999년부터 추계학술대회때부터 개최하였다. 또한 선후배 회원들간의 대화의 장도 마련하여 대외학회 활동에 새로

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.

최근 담배산업시장의 개방화, KT&G의 민영화, 외산담배회사 국내진출 및 시장 점유율 증가(20%이상)등 외국담배회사와의 치열한 시장경쟁속에서도 우리시장 방어를 위한 담배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과 객연위생등 이와 관련된 학술활동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.